부푼 마음 부기 빼야 믿음

(하박국 2:1~20)

1.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2.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부푼 마음 부기 빼야 믿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부푼 마음 부기 빼야 믿음'
여성분들의 얼굴 모양이 호빵이나 보름달 같다며 자조 섞인 말을 합니다. 얼굴을 달걀모양으로 갸름하게 만드는 것이 여성들의 로망입니다. 잠자기 전에 유혹을 참지 못하고 라면을 국물까지 다 마셨더니 다음날 아침 얼굴이 퉁퉁 붓는 것은 비단 여성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붓기가 문제되는 것은 얼굴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해발 2200미터 산장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저를 만나기 위해 오신 목사님 내외분을 배웅하다가 발을 접질려서 나뒹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깜짝 놀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다행히 부러지지 않고 인대를 다치지도 않았지만 즉시로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그때의 붓기가 완전히 낫지 않고 지금도 걸을 때면 통증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4절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의 붓기가 빠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의 붓기가 빠져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세상의 일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굴이 호빵 같고 보름달 같아도 감사가 절로 나오는 마음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마음의 붓기가 빠지지 않았다면 사사건건 신경이 쓰이고 괴롭고 피곤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어제 말씀을 되짚어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들은 고난을 받는데 악인들은 성공하고 형통하다는 모순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보고자 애를 썼던 소수의 선민들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

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커녕 고난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충실해진 자들은 오히려 성공과 형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섬기던 바알이나 아세라는 단순히 종교적인 우상숭배의 의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우상숭배가 성공과 형통을 위한 답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자기계발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필이면 앗수르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을 통해서 남 왕국 유다마저 심판하시리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로써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민이 악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에 대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전체를 보면 이렇게 남 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될 바벨론 또한 자신들의 죄로 인해 멸망당할 것이 예언됩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은 바벨론이 멸망하리라는 예언 자체가 아닙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포인트는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것을 읽는 자가 달려가게 하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멸망 예언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록할 것이며 그 기록을 본 사람들마다 깜짝 놀라서 줄행랑을 치듯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대체 어디로 달려가라는 것일까요? 이것이 하박국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악인의 형통에 신경이 쓰이던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출발점으로 삼아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온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많고, 밭에 먹을 것이 많고, 우리에 양이 많고, 외양간에 소가 많은 상황을 형통이고 성공이라는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 왕국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한 대상으로 바벨론을 선택하십니다. 바벨론은 남 왕국 유다와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부자와 성공한 자들이 많은 1등 국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서는 의인의 억울함과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모순이 극도로 치닫게 됩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남 왕국 유다 내부에서 벌어지던 악인의 형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악행의 정점을 찍은 대표적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시면서 이 기록을 접한 자마다 빨리 달려가라고 하십니다. 이는 곧 지금

있는 자리로부터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뛰어 들어가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곧 성공과 형통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국력이 강한 것을 성공과 형통으로 삼는 세상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3장 17~18절의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성공과 형통의 기준으로 삼는 가치관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서의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공과 형통의 가치관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많이 갖는 것을 중요시하는 세상으로 뛰어들 수 있을까요? 바로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형통과 성공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많이 갖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바뀐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의 6절, 9절, 12절, 15절, 19절 다섯 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바벨론이 성공과 형통의 정점을 찍고 있는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한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재앙을 불러들이는 원인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뉘우치면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으며, 바벨론과 비슷하게 유다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추구했던 성공과 형통의 다섯 가지 요소가 실제로는 재앙을 불러들이는 원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분이 두터운가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가졌던 성공과 형통의 다섯 가지 요소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재산을 긁어모으는 일을 성공과 형통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긁어모은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며 삶 전체를 안정된 울타리 안에 두는 보장으로써의 성공과 형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성취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을 성공과 형통으로 여겼음이 나타납니다. 15절의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12절과 비슷한 맥락으로써 타인을 이용하여 성공과 형통을 이루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9절에서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가 언급됩니다. 이는 곧 우상숭배를 성공과 형통으로 여겼음을 의미합니다. 말 한 마디 못하는 우상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소원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재앙과 심판을 불러오는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장의 말씀을 통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까지 성공과 형통이라고 생각했던 삶의 모습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성공과 형통을 바라고 하는 일들이 실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요소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러한 일에 실패했더라면 재앙 또한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과 형통에 몰두하는 동안 오히려 재앙을 몇 배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기준에서 악인의 형통을 전혀 부러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세상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마음은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을 일컫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완벽한 성공과 형통의 삶을 이루었다고 여겨지는 바벨론의 내적인 힘은 바로 교만과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거짓이 있었기 때문에 재물을 긁어모을 수 있었고 그 재물로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타인을 이용하고 강압하여 성취를 이루고 향락을 얻고자 했습니다. 우상숭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죄악이 내적인 교만과 거짓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교만이나 거짓은 단순히 부정부패를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교만과 거짓이 무엇인지는 말씀 하반부에 나오는 의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만은 히브리어 “우펠라”로서 “아팔”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로 부풀린다는 뜻입니다. 즉 교만이란 마음이 부풀어 오른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와 대비되는 믿음은 마음이 부풀어 오르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푼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희망이나 기대 따위가 마음에 가득하게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만이란 바로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부푼 상태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갖고 기대를 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본래 에덴 밖의 세상은 기쁨이 생산 될 수 없고 기쁨이 근절된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채워짐을 통해 기쁘고 만족함을 누리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쁨으로써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기쁠 수 있다고 속였고 인간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거짓말을 믿은 사람들은 마음이 부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푼 마음에서는 “나는 가질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늘릴 수 있다, 올라갈 수 있

다"라는 희망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가져라, 좌절하지 말라"는 말을 덕담으로 하지만 실은 이 모든 말들은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억울한 심정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한 번 태어났으면 잘살아봐야지 못 살면 되겠습니까?"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가짐은 바벨론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과 형통을 얻을지라도 종국에는 스스로 다섯 가지 재앙을 불러오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풀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과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음이 부풀어 오름이 없다는 것은 곧 세상을 향한 의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희망과 기대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웃음이 나올 만큼 이상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히브리어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이 부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곧 교만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귀의 거짓말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거짓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은 바로 세상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 부푼 상태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토"입니다. 명사인 "에무나"에서 파생된 이 말은 "견고하다, 굳건하다, 확실하다, 충성, 성실, 불변, 한결 같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부풀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오늘도 내일도 지속해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무엇인가 주어질 것을 바라지 않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27절을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희망과 기대도 갖지 않고자 했습니다. 스스로 의욕을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대로라면 사람은 하늘만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 주시면 받고, 내려오는 것이 없다면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세상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 찬 의욕이 전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을 해야지, 저런 것을 가져봐야지”라는 의욕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그것들을 통해 기쁨을 얻어 보겠다는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마귀의 거짓말을 신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성공과 형통의 핵심으로써의 교만이고 거짓입니다. 이러한 바벨론과 같은 상태에서는 세상에서 성공할수록 형통할수록 주어질 것은 재앙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만 전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선민들이 광야생활을 하던 시절을 생각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광야에서 사십 년이나 훈련시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면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우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만나와 물과 고기를 모두 하나님이 제공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생활은 이 세상을 향해서는 희망과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의욕을 보이고 살지 말라는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다리를 다쳤을 때에 붓지 않은 발과 부은 발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붓지 않은 발은 뼈에 살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붓기가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대해 어떤 의욕도 가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 또한 목사로써 목회에 대한 의욕을 가졌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마음이 부풀어서 믿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이란 세상에 대해 마음이 부풀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오직 하늘만을 바라는 모습입니다. 한결 같고 변함이 없고 충실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면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믿음을 충실하게 목숨 걸고 지켜나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연결은 시작됩니다. 이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며 하늘의 평강으로 넘쳐납니다.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를 지속함을 통해 세상에 대해서 의욕을 보이려는 나를 끝내고 에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는 세상에 대해 어떠한 기대와 희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의욕을 보일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주어진 것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장갑 삼아 움직이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상태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언급하고 사도 바울이 목숨 줄처럼 붙잡은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한 희망과 기대에 부푼 마음이 멸망으로 향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